

21세기를 향한 한국청소년정책*

- I. 서 론
- II.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III. 결 론

I. 서 론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덕·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과정의 인격체로서 사회환경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배우며 자란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의 기본과제이다. 청소년들이 바르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날 때 그만큼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50년대에는 건국과 한국동란등의 혼란기로 별도의 청소년정책이 없었으며 60년대부터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었다.

1964년 9월에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관계 시책의 종합조정 등의 기능수행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1977년 8월에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는 중앙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1988년 8월에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구와 기능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업무 전담부서의 분산, 예산지원의 부족, 통괄조정기능의 미흡 등으로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청소년 지도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관장해오던 청소년대책의 기획·조정·통괄기능을 청소년육성법의 발효에 따라 체육부가 이관받아 제반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1988년 6월에 청소년국(1국 4과)을 신설하였으며 90년 9월에는 청소년정책조정실(1실 2국 6과)로 승격하였다. 또한 청소년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1989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 글은 체육청소년부와 한국청소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요약한 것임.

현재 정부내 31개 부·처·청 및 15개 시·도에서 매년도별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부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II.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 기본방향

우리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질서의 문란, 공해의 만연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청소년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편중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의 청소년정책도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 규제적, 산발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의 고갈, 이기주의의 팽배, 정신적 가치의 경시등으로 국가의 장래도 낙관적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2천년대를 내다보면서 1,360여만 한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질을 개발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보장, 청소년복지·환경개선, 국제교류 및 통일조국의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조장적, 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1990년 9월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 기획팀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실 간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1차 시안을 90년 12월에 작성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1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소년 관련회의

(기본계획위원회 4회 개최,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 2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2회, 민자당 청소년대책특별위원회 1회, 학생·교사·아동문학가 등 직접 토론회 9회, 대국민 TV토론)등을 개최하였다.

기본계획 2차 시안을 91년 5월에 작성하여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218개 기관·단체들의 2차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을 91년 6월에 확정하였다.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 삶을 개척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며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사업의 기준을 제시한다.

범국민적 참여와 지원으로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부문」, 청소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주는 「청소년 복지 부문」,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 고양과 통일조국 기반구축을 위한 「청소년교류 부문」,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적 국민일반 관념의 전환과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법제 보강 부문」과 「청소년 제정의 확충 부문」등 5대 부문으로 작성하였다.

기본계획의 중점목표는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 요람 조성, 선진·민주·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함양 등이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제7차(1992~1996) 및 제8차(1997~2001)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맞추어 10개년의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 작성하였다.

2. 청소년 활동

청소년기(9세~24세)의 활동은 주로 학교, 직장, 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근로, 복무활동의 고유영역,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의 임의영역, 주로 일반사회의 생활권이나 자연속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활동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수련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은 수련영역의 여건을 조성하여 고유영역과 임의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균형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수련거리(프로그램)

수련거리는 수련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 및 수련과 관련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청소년단체, 관련기관 또는 개인의 개인별·산발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련거리의 종류·수준·적용방법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수련거리는 다수 보통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과학적·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수련거리는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금지 등 6대 수련지표에 따라 체력단련(체력증진, 영양개선, 위생관리, 안전훈련), 정서함양(독서생활, 특기개발, 감상, 관람), 자연체험(극기인

내, 정의심 배양, 책임증진, 창의성 개발), 예절수양(경로효친, 예의범절, 신의·성실, 정직), 사회봉사(질서지키기, 봉사활동, 자율성함양, 근검절약), 전통문화(나라사랑, 전통민속, 통일의식교취, 국제이해), 복합수련(역사이해, 행사참가, 국제친선, 시민정신, 대화의 광장)등 7개 활동영역별로 3백종의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가칭)에서 연구·개발한다.

한국청소년수련원(가칭)을 설립하여 수련거리 시범운영과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 수련거리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전산뱅크제를 도입하여 과학화, 전산화, 전국화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개발된 수련거리는 생활권 활동과 자연권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생활권 활동은 학교, 직장, 복무처의 수련시설이나 인근지역 수련터전(수련실, 수련방)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련거리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자연권 활동은 대자연속에 마련된 수련터전(수련의 집, 수련의 마을)에서 1박 2일 이상 일정기간 머물면서 실시하되 학교, 직장, 복무처 및 청소년단체를 통해 참가한다.

수련활동 편성표는 수련활동 참여자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복무·무직청소년이 연간 참여해야 할 수련활동시간(국민학생 연 172시간, 중·고교생 연 272시간, 대학생 연 66시간, 근로·복무·무직청소년 연 48시간)과 수련거리를 활동유형별로 제시한다.

학생청소년의 수련활동시간(중·고생 경우 연 272시간)은 현행 68시간의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나머지 204시간은 주말과 방학기간을 할

에한다. 근로·복무·무직청소년의 수련활동시간(연 48시간)은 근로의욕 고취, 복무능력 제고, 취업기회 제공의 방향으로 운용한다.

수련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고충해소, 호기심 충족,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상담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청소년 상담사업의 중추적·총괄적 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가칭)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한다.

2) 수련터전

청소년육성법 제 2조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은 학교시설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목적을 설치된 시설이며, 동법 시행령 제 1장 제 2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 시설현황(90년 12월 현재)은 전용시설로서 청소년회관(33), 학생교육관(15), 학생과학관(12), 학생야영장(72), 심신수련장(56), 자연학습원(9), 유스호스텔(18), 기타(8) 등 223개가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체육시설(917), 문화시설(802), 복지시설(88), 공공시설(81), 공원(1,111), 기타(44) 등 3,037개가 있다.

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청소년 시설은 3,060개로서 청소년 4,180명당 1개소의 비율이며 일본의 경우(54,391개소 540명당 1개소)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나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카페, 디스코장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여가활동공간이 되고 있으며 음란도서, 음란비디오, 음란영화 등 각종 유해환경에 무

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련터전(장소, 시설, 설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여 행정구역, 청소년 분포도, 자연경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되 기존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터전으로 수도권에 청소년 대전당 1개소(2만평 규모)를 건립하며, 수련원(2천 5백평 내외)을 각 시·도별로 1개소씩(총 15개소) 설립하여 청소년 활동 및 서비스제공, 지도자 연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수련관(1천5백평 내외)을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총 273개소) 설치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수련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개별수련활동 공간으로 수련실(2백평 규모)를 시·군·구당 평균 5개소씩(총 1,365개소) 확보하며 수련방(1백평 내외)을 읍·면·동당 평균 3개소씩(총 10,632개)확보한다.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국토탐사로(11개소), 바들산 수련장(30), 산천 수련장(300), 잔디수련장(40), 문화권 수련장(12), 수련의 집(211), 통일청소년광장(3), 청소년 신천지(1개소)를 만든다. 이러한 터전들은 기존의 국·도·군립공원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며 민간소유 수련장을 시설 및 환경기준에 따라 보완하여 활용한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터전의 확보에는 막대한 재원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10년간 걸쳐 점차적으로 확충하며, 우선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자연권 수련터전(608개) 및 생활권 수련터전

(12,909개)에 필요한 총 13,517개 시설 중에서 4,494개소는 기존의 청소년 전용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공공회관, 농어촌 폐분교 등을 활용하여 충당하며 나머지 9,023개소는 신규로 확보한다.

이 계획에 따라 13,517개의 청소년시설(청소년 1,009명 당 1개시설)이 확보되면 선진국 수준에 크게 접근할 수 있다.

3) 전문지도자

우리나라의 청소년지도자는 전문양성과정 및 임용·배치기준이 없는 가운데 청소년단체가 주로 현직교사, 직장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그 전문성과 시간이 부족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지도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수는 공무원 8,434명과 민간지도자 328,803명을 포함해서 총 337,237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계하는 지도자는 상근지도자(청소년단체 직원 3,001명)와 비상근지도자(현직교사 및 직장인 218,971명) 등 약 22만명 정도이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전문지도자와 자원지도자로 구분하여 양성한다. 전문지도자는 각자의 자격여건에 따라 3개월~2년까지의 정규·특별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3만 7천명을 양성한다. 자원지도자는 전문기능 보유자와, 학부모, 퇴직공무원, 퇴직교사 등 희망자를 대상을 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통해 10만명을 양성하여 전문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은 청소년터전에 전문지도자 16,800명과 자원지도자 67,900명을 배치하며 청소년단체에 전문지도자 3,200명과 자

원지도자 8,000명을 배치한다. 학교에는 현직지도자 11,000명과 자원지도자 22,000명씩을 배치하며, 직장과 복무처에는 현직지도자 6,000명과 자원지도자 6,000명씩 각각 배치한다.

4)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단체의 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하여 전체 청소년의 13%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지도·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청소년단체와 그 단체의 고유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활동과 지도업무를 실시하는 부수 목적단체 및 기타 특수목적에 유관기관·단체·협회의 유형이 있다. 청소년 단체 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31개 단체와 기타 비가입 단체를 포함하여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재정적 영세성과 전문지도자 부족 등으로 단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본적·초보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으며, 활동의 내용도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수행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단체의 자율성과 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청소년단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단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수련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 단체의 설립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청소년단체활동의 내실화와 다양화를 촉진한다.

청소년단체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을 주관·실시하는 수련터전 중심의 「수련터전 운영법인」, 수련거리 운영주체로 집단지도 조직체인 「수련거리 전문운영단」, 청소년 또래집단같이 자율적으로 형성·운영되는 모임체인 「청소년 자생모임(동아리 씨클)」등 4가지로 유형화 한다. 사업계획은 회원중심 청소년단체 200개와 수련활동 시설법인 1,389개를 설립·지원한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청소년단체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와 단체간의 교량 역할을 강화한다.

5) 동기 부여

청소년활동에서 고유활동, 수련활동, 임의활동으로 그 영역이 구분될 때 고유활동과 임의활동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전통이 형성되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체험활동인 수련활동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정책의 결여로 불건전한 놀이문화에 쉽게 동화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련활동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발적인 참여의욕과 만족스러운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활동 자체에 대한 강한 흥미와 매력을 갖게 함으로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꿈과 이상을 가꾸며 힘차고 유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가 수련활동에 참

여하고 싶도록 흥미적인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실시와 청소년들이 자주 보고 싶은 수련의 요람을 만들어 존경하는 지도자와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내적 참여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고, 매년 진취적이고 귀감이 되는 모범청소년들을 선발·포상하여 외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한다.

「내적 동기부여」의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의 수련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련거리의 개발과 자율적 운영방안에 초점을 두며, 청소년 스스로 수련활동 욕구(안전·성취·탐구욕 등), 흥미·가치의 자각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련활동의 다양한 확보, 여가선용 및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한다.

「외적 동기부여」방안의 마련은 외부환경이나 제도, 기타 외적 유인을 도모·활용할 수 있으나 활동목표 설정의 명확화, 성공과 실패의 경험, 상벌의 활용 등 기본원리에 입각한다.

구체적 외적 동기부여의 방안은 현재 청소년들이 입시·취업등 각종제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편의상 제도의 동기부여와 제도화를 통한 동기부여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을 수련활동의 기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1996년까지는 학생청소년의 대학진학시 자율적으로 입시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97년 이후에는 수련활동에 참여한 횟수나 참여내용이 내신성적의 10%정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조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근무·복무청소년들은 진급·취업 성적 평정시 교육성적으로 수련활동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 94~97년까지는 먼저 공무원 임용, 공공

기관에서 청소년을 채용·승진시킬 경우 수련활동의 참여내용과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97년 이후에는 일반 기업체 등에서도 임용·승진시 수련활동 실적이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3. 청소년 복지

1) 사회환경의 개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모를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세대간, 이웃간의 단절과 괴리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TV, 잡지 등 대중매체의 폭력적·퇴폐적 프로그램과 자극적·선정적 보도내용이 만연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과 사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회풍조의 확산으로 우리의 생활주변은 성인대상의 각종 퇴폐·향락업소에 의하여 점유되어 청소년들은 비행과 탈선의 유혹으로부터 적절한 규제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가정·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기능과 역할을 증진,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아울러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이 요청된다.

(1) 청소년관련 기초자료 조사

청소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조사는 청소년 인구 및 환경실태, 청소년의 의식, 생활실태,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기타 특수영역 등으로 구분하며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2) 가정·지역사회의 역할증진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가정과 지역사회 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양(19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지정, 청소년헌장 이념 구현사업 실시 등), 가정에서의 청소년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가훈갖기 운동 전개, 청소년지도를 위한 사랑방교실 운용, 각종 연수과정에서 청소년관련 연수시간 배정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청소년 건전육성등을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청소년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활동지원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의 부모참여(부모-자녀의 수련활동 공동체험 등) 등을 실시한다.

(3) 대중매체의 활용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과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청소년 고정란의 신설,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을 배려하는 국민의식과 가치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TV·방송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청소년 잡지의 발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포함한 청소년활동 전반에 관한 입을 거리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청소년관련 각종 위원회 및 단체활동에 언론

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배려와 협조를 유도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청소년 유해환경은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해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유해시설은 청소년들의 비행에 유발하는 장소적 유형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는 성인대상 유흥업소, 음란출판물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을 가리키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각종 환각성 약물류, 술, 담배, 도색 잡지, 음란비디오등을 들 수 있고, 유해행위는 성폭행, 야간배회 등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사업추진 방향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강화노력은 규제의 편의 때문에 청소년생활의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격리나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현실성 있게 제도화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처벌이나 단속같은 강권적인 규제는 보상이나 권장과 같은 설득적인 규제수단과 적절히 병행한다. 또한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한다.

2) 어려운 청소년 지원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국민복지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도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부랑인 선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받아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기금

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서비스의 질 개선 등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부문은 아동복지 부문에서 18세 미만(일부 20세이하 포함)의 어려운 청소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직 사회복지의 고유영역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부문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확보함은 물론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어려운 청소년(시설보호 청소년, 영세가정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 무직청소년)등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 정상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 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부터는 그 대상을 전체 청소년으로 점차 확대하여 미래사회 주인이 될 모든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련활동지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시설보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및 무직청소년에게 정부의 지원으로 수련활동의 기회를 주어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며 아울러 어려운 환경속에서 비정규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근로 청소년들간의 친선도모를 제고한다.

또한 시간의 제약과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 청소년과 농어촌, 광산촌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순회공연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교나 직장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어려운 청소년과 무직청소년들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시간은 많지만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설 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유흥비 등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행·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예방·관리한다.

(2) 교육·직업훈련 지원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대이므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무직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을 하도록 적절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무직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은 매우 절실하다.

또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인력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확대하여 학습분위기를 제고한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에게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육성회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교복값 등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의 경우는 교육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요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3) 비행청소년 예방관리

체육청소년부는 전체 청소년의 활동의 조장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비행청소년 발생을 장기적·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규제·교화업무는 내무부, 법무부, 체육청소년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계법령의 개혁, 시설·환경의 개선 및 행정지원업무 강화를 도모한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방안으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한 수련활동 강화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국민운동으로는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도덕성 회복을 위한 순회강연, 어려운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대회, 비행청소년 결연사업, 가출청소년 선도활동, 청소년 보호구역, 지도활동, 청소년 약물오·남용예방대책사업 등을 추진·지원한다.

4. 청소년 교류

미래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신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정보화·국제화 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모든 청소년들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고, 이웃과는 예절바르고 협동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보와 풍물을 익혀, 전문을 넓힘으로써 국가간 상호이해, 조화와 합일의 국제화 사회에서 인류공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360여만 전체 청소년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 청소년의 초청과 함께 해외파견을 통해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이념체제와 단절된 생활로 인하여 역사와 문화, 언어와 습관 등이 이질화된 분단상황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상호신뢰와 화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세계의 중심무대에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 국제교류

국제교류는 정부차원의 직접교류, 국제청소년 기구를 통한 교류, 청소년학술회의를 통한 교류, 민간 청소년단체를 통한 교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힌다.

또한 여러 국가들과 정기적인 청소년관련 협의회 개최, 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적극 참가,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간 협력을 증진시킨다.

청소년 해외탐방선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유기배양과 모험심 충족, 국제화시대의 상호이해와 우의증진, 다양한 선상 수련활동 개발, 외국과 연계 탐방선 운영 등을 도모한다.

2)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갖고 있었던 한민족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희생물이 되어 반백년의 분단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지역,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의 동질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 민주, 통일조국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한민족의 깊은 이질감을 떨쳐버리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 청소년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진방안은 남·북 쌍방 청소년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한 단계적 접촉 시도, 쌍방이 개최하는 청소년 행사에 상호 초청, 청소년 단체활동 공동참여 및 단체간 자매결연, 남·북 공동주관으로 청소년 어울놀이 개최, 통일 청소년대행진, 청소년 학습여행단 상호방문 등의 행사 추진, 공동 탐사사업 전개, 남·북 청소년 만남의 광장 설치 등이다.

5. 법제 보강

개개인의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는 한사람의 인격체인 동시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자신의 발전은 물론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전국 이래 청소년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고유기능에 따라 각기 분담 추진되어 온 결과,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도시계획법, 수자원이용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으로 체계화되었으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 관계되는 현재 교육법, 사회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으나 체계성이 미약하다.

국민의 30%이상을 점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되는 청소년들이 건실하고 유능하게 자라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기본법률은 선언적 의미성만을 지닌 청소년육성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래의 상황에 원할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배려하는 국민의식 전환정책의 추진과 제도개선, 청소년 기본법 제정 및 기존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1) 청소년 배려 제도 보강

청소년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 및 국민총의 결집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1~2백명 내외로 구성하는 한국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제도 보강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지구의 설정, 복합민원 처리제도 도입, 청소년 활동을

위한 수련터전 설치 특례제도 도입, 청소년 수련활동 장애행위 규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세제지원,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체적 능률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정비 등을 시행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정

한국청소년기본법의 제정 방향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과 청소년육성법의 추상적, 선언적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 청소년 스스로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 정서함양, 자질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요소(수련거리, 수련터전, 지도자, 단체)의 설정 ② 청소년 정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의 종합, 체계화 ③ 수련거리의 개발·시범운영 및 청소년 상담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추기구(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치근거 마련 ④ 청소년 수련활동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기준 제시 ⑤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확보 및 동기부여에 관한 기준제시 ⑥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모든 국민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 등이다.

3) 청소년 관계법령의 정비

청소년 관계법령은 청소년육성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청소년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 및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248개 법령이 있다.

이 가운데 주요법령은 52개이며 청소년의 고유영역별 생활활동에 관계된 법령이 35개, 청소년 수련터전 관계법령이 12개 및 청소년지도자, 단체에 관한 법령이 5개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 관련 각종 법령은 입법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과 상이성 그리고 법률의 적용상 중복·누락·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대두된다.

또한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을 위한 건축·토지관계법령 개정과 청소년 부문에 민간참여를 위한 세제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6. 재정의 확충·운영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는 장기적·지속적·절대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총소요재원은 2조 4,836억원(청소년 관련부처의 복지지원사업비 4조 3,311억원 제외)으로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 2,097억원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에서도 1조 2,739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2000년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청소년의 자발적, 능동적인 삶의 실현과 선진, 민주,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 공공부문에서 6,031억원(국고 3,824억원, 지방비 2,207억원), 민간부문에서 4,393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에게 할거리와 터전 등 기본적인

활동여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 8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공공부문에서 6,066억원(국고 3,691억원, 지방지 2,105억원), 민간부문에서 8,346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활동 요람을 조성한다.

부문별 재원 배분은 향후 10년간 수련거리개발·보급사업에 6.7%(1,664억원), 수련터전 확보에 71.7%(1조 7,795억원),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12.3%(3,070억원), 청소년단체 육성에 1.8%(455억원), 동기부여에 0.1%(23억원), 청소년 복지사업에 5.1%(1,260억원), 청소년 교류사업에 2.3%(569억원)을 투자한다.

III. 결 론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기대효과는 밝고 능동적인 미래사회를 건설, 국민정신개혁, 한국의 위상을 세계속에 떨칠 제2의 서울올림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청소년 관련 유희시설 등의 정비, 보강 및 최소한의 신규시설 확충으로 기본계획의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의식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

풍을 진작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선진, 민주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고 국가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사회의 급변으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전통문화의 방치현상을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하여 우리 열과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을 유도하여 민족 자긍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계관의 국제화 및 미풍양속의 회복을 기대한다. 또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복지정책의 확산, 민주가치의 생활화·내면화로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구현을 기대한다.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민족 자긍심의 고양, 전통문화의 재발견, 협동·질서의식의 정착 등 외면적 성장을 이룩하였듯이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건강과 정서, 용기와 예절, 협동과 긍지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세계의 모범 청소년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뜻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전국민의 청소년 사업투자와 국민의 세금투자로 우리 청소년들이 힘차고 유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요람을 건설함으로써 21세기 사회의 주도적 국가로 도약함과 동시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